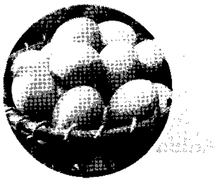

* 등급정보 (계란) *

▷ 29개 업체에서 생산한 4천327만7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93.1%, 1등급은 6.8%, 2등급은 0.1%, 3등급은 0.0%를 차지, 전월대비 594만5천개(12.1%P) 감소, 전년동기(24개 업체, 3천184만5천개)대비 1천143만2천개(35.9%P) 증가, 금월누계는 4천327만7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1천143만2천개(35.9%P)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중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11년 1~1월	43,277	40,302	93.1	2,929	6.8	46	0.1	-	-
'10년 12월	49,222	45,677	92.8	3,515	7.1	30	0.1	-	-
'11년 1월	**43,277**	**40,302**	**93.1**	**2,929**	**6.8**	**46**	**0.1**	-	-
왕란	334	269	80.5	65	19.5	-	-	-	-
특란	32,442	30,086	92.7	2,310	7.1	46	0.1	-	-
대란	10,502	9,498	94.7	553	5.3	-	-	-	-
중란	-	-	-	-	-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양계협, AI 비상방역 대책회의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1월 11일 구제역에 이어 최근 발병하고 있는 AI의 확산방지 및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대책회의를 가졌다.

오정길 조합장은 "방역당국에서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농가와 우리사업장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자세로 양계농가에 철저하고 올바른 소독절차를 지도하고 매일 예찰활동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집란차량, 사료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관리, 효과적인 방역매뉴얼을 토대로 농가, 계란유통센터, 사료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절차를 준수할 것과 농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신고 : 1588-9060)

토막뉴스

축산인 DB 구축, 출입국 100% 관리

올 하반기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하반기에 축산인 DB를 완벽히 구축해 출입국 현황을 100% 파악하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권을 소지한 국내 축산종사자는 10만명이다. 유 장관은 또 "현재 살처분 보상은 가축의 시가 100%를 해주게 돼 있지만 농장주가 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살처분 보상금을 60%까지 삭감할 수 있다"면서 "추후 정밀하게 역학조사를 한 뒤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축은 272만두, 이로 인한 보상액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